

[사회]

전남대 정외과 로스쿨 준비반 만든다

광주·전남선 처음... 타 대학·학과 개설 잇따를 듯

내년 3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을 앞두고 광주·전남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전남대 정치외교학과에 로스쿨 준비반이 개설된다. 법학과 이외의 학과에서 로스쿨 준비반이 개설된 것은 다양한 전공 분야의 법률 전문가 양성이라는 로스쿨 운영 취지와 맞아, 다른 대학 및 학과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준비반 개설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대 정외과는 이미 지난해 1학기부터 로스쿨을 염두에 두고 '법과 정치'라는 과목을 신설했다. 현재 법대에서 초빙된 교수가 진행하는 이 강의에는 매 학기 50~60명이 꾸준히 수강하고 있다.

윤성석 학과장은 "미국 로스쿨의 경우 입학생의 35%가 정치학과와 외

교학과 출신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며 "학과 차원의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과목을 개설했다"라고 말했다.

전남대 정외과는 학과 내 20여명의 로스쿨 준비학생들을 위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을 만들고, 법학 관련 커리큘럼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로스쿨 입학에 필수인 법학자성시험(LEET) 준비를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하고 시험 노하우를 축적할 방침이다.

로스쿨 준비반은 정외과 3~4학년 학생 및 2년이 지나지 않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며, ▲전 학년 평점 4.0점 이상 ▲토의 700점 이상 등의 기준을 통해 구성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로스쿨 준비반에서는 어학 스테디와 LEET 스테디, 논술 및 시사 토론, 선·후배가 학습을 서로 돕는 진학 일촌제, 로스쿨 진학 설명회, 모의 LEET 시험 등을 마련하게 된다.

학생들에게는 온라인 강의를 포함한 로스쿨 진학 관련 강의를 원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고, 로스쿨 시험이나 각종 어학시험 응시에 따른 지원금을 받게 된다.

도주환(27·정외과 4년)씨는 "인문 사회과학의 위기라는 말이 유행처럼 떠돌던 시대에 특화된 나만의 영역을 찾다가 로스쿨 진학을 결정하게 됐다"며 "정치학도가 법률 전문가가 된다면 더 많은 분야에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관·검사 성과급제 평가 어떻게..."

질적·양적 업무 기준 애매 '골머리'

올해부터 관·검사도 '성과급제'가 도입됐으나 평가방법을 놓고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12일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각각 지난해 18일과 22일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직무성과급 지급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통상 고법 부장판사와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이상을 제외한 15호봉 이하 관·검사 4천500여명은 직무의 내용, 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갑·을·병·정 4개 등급으로 나뉘어 연간 두 차례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는다.

갑등급(상위 15% 이내)은 지급기준액(9호봉 전년도 월 봉급

액)의 130% 이상, 을등급(15~35%)은 기준액의 100%, 병등급(35~70%)은 기준액의 80%, 정등급(상위 70% 초과)은 기준액의 70% 이하를 받게 돼 있다. 예산도 확보됐고, 법적인 뒷받침도 마련됐지만 문제는 성과급 등급 기준이다.

관·검사 업무를 관결건수, 기소건수, 기소 후 유죄건수 등 양적으로 따지기도 애매하고, 질적으로 평가하기도 쉽지 않으며 다수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자칫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법관에 대한 직무성과급 지급은 재판상 독립과 신분보장이라는 헌법정신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연합뉴스

봄 비 3월 13일 (음 2월 6일) 전국날씨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조금 오겠다.

광주	흐려져 비	7~17℃
전남	흐려져 비	6~16℃
전북	흐려져 비	9~14℃
충청	흐려져 비	7~15℃
경상	흐려져 비	4~17℃
강원	흐려져 비	4~16℃
제주	흐려져 비	3~16℃
서울	흐려져 비	5~15℃
부산	흐려져 비	4~17℃
대구	흐려져 비	3~16℃
인천	흐려져 비	6~17℃
대전	흐려져 비	6~18℃
충주	흐려져 비	3~18℃
영주	흐려져 비	6~11℃
목포	흐려져 비	6~11℃
여수	흐려져 비	6~11℃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5m
남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5m
만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 06:08 썰물 < 11:11
목포 밀물 < 18:01 썰물 < 23:19
여수 밀물 < 00:40 썰물 < 06:38
여수 밀물 < 12:32 썰물 < 18:47

▲해돋이 06:46 ▲해질 18:38 ▲달돋이 09:53 ▲달질 00:04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주간날씨

날짜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19(수)
날씨						
최저/최고	7/15	3/18	3/17	4/17	4/16	4/19



참여자치21 등 광주·전남 5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등록금 대책을 위한 광주·전남 네트워크'는 12일 낮 광주시 동구 금남로 삼복서점 앞에서 '등록금 인하를 위한 퍼포먼스 및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공개수배 비웃듯 또 절도

나주서 금은방 2곳 잇따라 털려

나주경찰이 지난 설날에 발생한 이창동 금은방 절도사건의 용의자들을 최근 공개수배한 가운데 이들 비웃듯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금은방이 털린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3시께 이창동 A 금은방에 절도범이 침입해 진열장에 있던 18K 금반지 등 4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이 지역은 금은방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지난날 7일에도 20~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B 금은방에 침입해 6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털어 달아나는 등 2004년 이후 5건의 절도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나주경찰은 현재까지 단 1건의 사건도 해결하지 못한데다 A 금은방은 나주경찰서 영산지구대와 불과 200여m 거리에 있어 '치안 공백'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의 범인은 대로변에 있는 A 금은방의 방범셔틀과 출입문을 파손한 뒤 내부로 침입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달에 발생한 사건과 동일범은 아닌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올해 들어 금값이 오르면서 반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B 금은방에 침입해 6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털어 달아나는 등 2004년 이후 5건의 절도사건이 발생했다.

나주=최승필기자 srchoi@

광양산단 인근 주민들 알레르기 고통 심하다

환경과학원 조사

국립환경과학원은 순천향대 손부순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광양산단 주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노출수준 및 생체지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산단 내 주민들의 알레르기성 질환 호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등은 지난해 광양산단단지가 걸쳐있는 광양시와 여수시, 경남 하동군 등 3곳의 주민 2천545명을 거주 지역별

로 10km내 주민(조사군)과 10km 외 주민(비교군)으로 나눈 뒤 알레르기성 질환 경험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조사군의 11.2%가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을 경험했다'고 답해 비교군의 8.3%보다 높았으며 알레르기성 눈병을 경험한 주민의 비율도 조사군이 28.3%인 것으로 조사돼 비교군의 22.4%를 웃돌았다. 반면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험 비율은 조사군(18.8%)과 비교군(19.2%)에서 비슷하게 나왔다.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심을 받고 회사 대표 K씨와 같이 생겨 형사 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H씨와 K씨를 차례로 찾아가 '사건화 하지 말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12일 자신의 친척이 연루된 형사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산 현지 검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L검사는 2006년 12월 전남도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던 친척 H씨가

광주·전남 등록금 인하 투쟁 본격화

대학생·시민단체, 퍼포먼스·서명 운동 나서

광주·전남 대학생과 시민단체의 등록금 인상 관련 공동대응이 본격화했다.

특히 등록금 인상 저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전남대 학생들은 5월에 치러질 총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주장하고 나서 등록금 인하 투쟁의 양상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광주·전남 네트워크'는 12일 낮 광주시 동구 금남로 삼복서점 앞에서 등록금 인하 퍼포먼스와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대학생들도 가세해 등록금 인상의 부담함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들은 ▲교육재정 GDP 7% 확보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록금 상한제·후불제·차등정책제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날 전남대 총학생회는 교내 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퍼포먼스와 학내 가두행진을 통해 등록금 인하 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학생들은 집회 후 대학본부를 방문, 기획처장과 학생처장에게 공개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요구서를 통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학생간 협의체 구성 ▲학생들의 총장 선출권 보장 ▲학교 측의 공식적인 국립대 법인화 반대 성명 발표 ▲등록금 상한제,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 대학생의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지지성명 발표 등을 주장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인터넷 도박 사이트 역대 쟁전 30대 구속

광주 북부경찰은 12일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유모(39)씨를 도박장개장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6년 7월 2일부터 한 달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접속자들에게 속칭 '바둑이'와 '포커' 도박을 하게 한 뒤 탈러비 명목으로 1억6천만원을 쟁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지역 가맹점과 가맹점을 총괄하는 총판 등을 모집해 한 차례 게임당 관돈의 3.5%를 자신이 챙겼으며 0.5%는 총판업자에게, 3%는 가맹점 업자에게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형기자 gilee@kwangju.co.kr

청하

일식요리의 명가

그동안 사랑해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청하**의 화제로 인하여 상사 휴업하고 신축대당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청하로 언제나 사랑받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청하**

대·소연회 / 상견례 / 각종 모임 및 접대 단체원영 / 주차장원비

광주광역시 동구 동천로 4가 2-1번지

☎ 223-7037 / 224-5002

오일미 국내 국민 관광여행사

대방 및 문의전화: 062-324-8830, 833-8830

오일미여행사 정산기념행사

오일미여행사

오일미여행사